

구텐베르크성서 보관된 인쇄문화 발상지

독일의 마인츠 인쇄박물관을 가다

부길만

범우사 기획실장·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 강사

필자는 10월4일부터 6일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서적박람회와 마인츠에 있는 구텐베르크 박물관을 다녀왔다. 서적박람회는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마인츠를 중심으로 쓰기로 한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인 마인츠 시내의 중심부에 들어서니, 옛 돌들로 포장된 길바닥이 인상적인데, 멋진 고건축미를 자랑하는 커다란 돔성당이 우뚝 서 있고, 그 옆쪽을 돌아가면 구텐베르크 동상이 길 한복판에 보인다.

구텐베르크 동상은 사람 키의 두배 되는 높은 받침돌을 놓고 그 위에 세워졌는데, 받침돌의 정면에 그의 이름(Joannem Gensfeish de. Gutenberg)과 건립연대(MDCCCXXXVII=1837) 등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고 그 측면에는 인쇄하는 사람들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다. 그러나 받침돌 밑부분은 온통 낙서로 지저분해 보였다. 저녁 늦게 다시 들르니, 그 동상 아래에 앉아 알콜중독자들이 술을 병째로 마셔대고 있는데, 어쩌나 술냄새가 지독한지 불쾌할 정도였다. 그 위에 신성한 기술의 발명자로 불렸던 구텐베르크가 자신이 인쇄했던 성서를 들고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東西의 희귀 인쇄·출판물 다수 소장

구텐베르크 동상을 지나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마인츠 구텐베르크 박물관-인쇄술과 서적의 박물관(Gutenberg Museum Mainz, Museum der Druckkunst und des Buches)이 나온다. 박물관의 마당에 들어서니, 그리 넓지 않은 곳인데 책모양으로 깎아놓은 커다란고 평평한 돌조각이 놓여 있는 모양이 인상적이었다. '슈타인부흐'(Steinbuch)라 이름붙였으니 우리말로 하면 돌서적 또는 石冊이라 하겠다. 그 돌은 단체관람객들이 앉아서 쉬어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7~8명 정도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안으로 들어가니, 4층으로 된 건물에 15세기 구텐베르크 당시의 인쇄기 및 그 이후 세기를 거처오면서 발달된 각종 인쇄기계들, 금속활자, 제본용 도구 등은 물론 활판인쇄술 등장 이전 중세의 카톨릭 수도승들이 펜으로 사용했던 깃털, 각종 빛깔의 색채, 책의 재료로 쓰였던 파피루스, 양피지 등등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어, 인쇄의 발달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교육장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이 박물관의 특징이자 장점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옛서적들이 소장되어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는데, 구텐베르크 당시의 인쇄본을 비롯하여 그 후 19세기까지 인쇄해 내려온 유럽의 각종 서적들은 물론, 구텐베르크 이전의 필사본들도 상당수 전시되어 있어서 출판문화의 역사적 숨결이 생생히 전해지는 듯하였다.

이런 인쇄물 중에 백미는 역시 구텐베르크가 인쇄했다는 42행 성서인데, 따로 밀실의 유리상자 안에 은은한 조명을 받으며 관람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성서의 크기는 가로 30.5cm, 세로 42cm, 편집체재는 본문이 2단 조판, 총수 642장, 활자 크기는 20포인트에 해당된다. 인쇄는 검정색이지만, 문장의 첫머리 글자는 남겨두었다가 인쇄한 다음에 손으로 붉은 색, 푸른 색 등으로 다양하고 정교하게 그려넣어 채색했기 때문에, 육중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생생히 드러내고 있었다. 당시의 필사는 오늘날의 인쇄보다도 더 치밀하고 완벽해 보였다. 하긴 처음의 인쇄본은 필사본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고 구텐베르크 자신도 활자꼴을 디자인하기에 앞서 필사본 연구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한다.

당시의 성경은 수도원의 필사승들이 양피지에 한 자 한 자 써내려갔기 때문에 책 한 권을 필사하는 데 보통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한다. 책값도 대단히 비싸서 필사본 성경 한 권의 값은 100굴덴으로서 이는 지방 부호의 큰 저택 한 채에 해당되는 값이었다. 따라서 그것을 찍어낼 수 있는 인쇄술은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로 생각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구텐베르크의 경우, 처음에는 인쇄시설과 인쇄기기를 위한 사전 투자비가 너무 컸던 관계로 채산성이 없어 도산하고 말았다고 한다.

구텐베르크 박물관 4층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아라비아, 이집트 등 세계 각지의 인쇄 또는 출판문화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았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커다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860년경의 칼라 인쇄본을 비롯한 다수의 인쇄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특히 770년경에 인쇄된 것으로 주장하는 '백만담다라니경'을 진열하고는 '세계 最古 목판본'이라고 한문으로 표제를 달고 독일어 설명을 곁들이고 있었다. 한국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그보다 앞선 751년경 간행된 사실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천혜봉교수에 의하면, 「백만담다라니경」은 「무구정광대



마인츠 시내에 있는 구텐베르크 동상.

다라니경」에 비하면, 20년 이상 뒤에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쇄술이 도리어 유치하여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인쇄보다 훨씬 뒤져 있다고 한다. 또한 완전한 초기 전적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서 다라니 본문 4종만을 뽑아 찍어낸 조그마한 낱장의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필사에만 6개월 걸렸다는 15C 성격책도

그러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동양의 문화도 일본이 앞장서서 전파하고 있으니 이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며, 옆의 한국 전시코너로 발길을 돌렸다. 그곳에는 1446년의 훈민정음 해제본, 1420년의 경자자로 인쇄된 잘려나간 인쇄지 1장, 18·19세기의 금속활자, 19세기 목활자 등이 각각 10여개씩 놓여 있었다. 그의 조선시대의 전적들도 상당수 전시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엔 구텐베르크 인쇄본의 등장과 같은 시대인 조선조 초기 활자본을 비교해 보면, 활자의 모양이나 디자인에서 그리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활자꼴을 더욱 세련되게 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4층을 다 둘러보고 나서 1층으로 내려오니, 기념품들을 파는 매점이 보였다. 그곳에선 42행 성서의 1페이지 칼라 복사물, 인쇄업의 역

사를 단계적으로 그려놓은 트림프 카드 세트, 관련 서적인 「마인츠의 서적문화」(Buchkultur in Mainz) 등을 팔고 있었는데, 특히 인상적인 물건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책이었다. 내용은 7개 국어(영, 독, 불, 미국판,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로 된 주기도문을 1페이지씩 넣고 옆 페이지에는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었다. 책을 넣은 유리상자의 밑바닥은 중앙에 돋보기 처리가 되어 있었다. 인쇄된 페이지의 크기는 3.5mm×3.5mm였다. 그 책을 자로 재면서 보니 1mm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다.

박물관을 나와 근처 책방을 다녀 보니 신간 서적 판매는 그리 활발한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재고도서들을 다량 서점 밖에 진열해 놓고는 "골라잡아 어느 것이나 3마르크"(우리돈 1500원)라고 쓴 표시를 붙여 놓은 것들이 종종 보였다. 우리의 재고도서 코너가 생각났다. 그러나 독일은 지금 구동독 출판사와의 합병을 통하여 그 힘을 키우며 세계시장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을 배태한 유럽인쇄문화의 발상지인 독일이 오늘 통일을 이룬 상황에서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있다면, 세계 최초 금속활자의 발명국인 한국은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출판문화의 도약을 이룩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독일을 떠났다.